

KIA 최형우 “30홈런 꼭 치고 싶다”



KIA 타이거즈 간판타자 최형우(36)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1983년생 최형우는 올해 36살이 된다. 프로야구 선수에게 나이 한 살은 커다란 부담이다. 실제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다준다. 스윙의 스피드와 수비에서 순발력이 떨어지고 주루 스피드도 하락한다.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도 길어진다. 최형우 자신도 세월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 오키나와 캠프에서 만난 최형우

는 “확실히 나이의 차이를 느낀다. 예전 같으면 세 번 정도 스윙하면 려도 뿔뿔말똥이다. 피곤한 것도 그렇고 아무튼 시간과의 싸움이다. 나이에 맞게 나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이라는 거대한 벽과 마주해 적응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최형우는 타율 3할3푼리, 25홈런, 101타점, 득점권 타율 3할4푼리를 기록했다. 2017시즌 3할4푼리, 26홈런, 120타점에 비하면

올해로 36살 “확실히 나이 차이 느낀다”
“시간과의 싸움...나이에 맞게 바뀌어야”

후퇴했다. 전반기에는 100타점이 불투명했으나 후반기 대야진을 하며 중심타자로 체면을 세웠다 상대의 수비시프트를 뚫고 밀어치는 타격을 하기도 했다. 특히 최대 6할4푼9리에 이르렀던 장타율도 작년에는 5할4푼9리까지 떨어졌다. 3년 연속 하락세이다. 작년에는 시즌 도중 4번타자 자리도 안치훈에게 넘겼다. 출루율이 좋아 3번으로 이동했다고 하지만, 최형우도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최형우가 이번 시즌 확실한 목표, 30홈런을 내세웠다. 최형우는 삼성시절 4번의 30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KIA에서는 2년 연속 20홈런대에 그쳤다. 2017시즌 입단 당시 “30홈런-10타점은 기본”이라고 했던 최형우에게는 자존심의 문제이다. 최형우는 “KIA에 와서 30홈런을 치지 못했다. 홈런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30홈런은 꼭 치고 싶다”고 밝혔다. KIA에게도 30홈런 타자 배출은 숙원이기도 하다. 2002년 출범 이후 30홈런 타자는 단 3명이었다. 2009년 김상현(36개)과 최희섭(33개), 2016년 이범호(33)가 주인공이었다. 최형우가 네 번째 30홈런 타자에 도전하는 것이다. 최근 장타력이 부쩍 상승한 안치훈과 나지완도 올해 30홈런에 도전하고 있다. 최형우는 KIA에 입단해 홈런보다 타점, 찬스를 연결해주는 안타, 출루율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고 실제로 그런 타격을 했다. KIA는 4번타자 최형우 효과 덕분에 2017년 강력한 타선을 구축해 통합 우승에 성공했다. 그러다보니 홈런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었다. 최형우는 지난 2월 26일 요코하마와의 연습경기에서 만루홈런을 폭발했다. KIA 유니폼을 입고 첫 30홈런을 향한 첫 걸음이었다.



백운기 전국고교축구수원 매탄고 우승 인양공고에 6-1 대승·광양제철고·금호고, 공동 3위

대한민국 봄꽃 대표축제가 열리는 광양에서 제21회 백운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가 12일간의 뜨거운 열정이 매탄고의 우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예년 보다 20여일 늦추어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매화 꽃이 만발한 가운데 광양공설운동장에서 매탄고가 인양공고를 맞아 6:1로 대승을 하며, 명실상부 전국 고교 축구의 최정상에 등극하면서 우승기를 가져가게 되었다. 매탄고는 16강에서 감천고를 3:0로, 8강에서는 영생고를 4:1, 4강에서는 광양제철고를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3:2로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다. 준우승팀인 인양공고는 16강에서 풍생고를 0:2로, 8강에서는 경기FC 일동을 1:0, 4강에서는 금호고와 승부차기 결과 5:3 이기고 결승에 진출하는 실력을 보였으나, 이듬해에도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다. 광양제철고와 금호고가 공동 3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금호고가 페

어플레이오프로 수상하게 되었다. 최우수선수상에는 매탄고 이규석 선수가, 우수선수상 인양공고 이용수, G K상 매탄고 김민재 선수, 수비상 인양공고 우재하, 베스트플레이어 이상 매탄고 박세준 선수가 차지하였고 최우수 감독상에 매탄고 김석우 감독, 우수감독상 인양공고 이순우 감독, 최우수 심판상은 유명복, 이용성, 장원준, 이승호, 김상훈, 황창일 심판이 수여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는 대한축구협회와 광양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남축구협회와 광양시축구협회가 주관하였으며, 전국 고등학교 축구 명문 35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광양공설운동장을 비롯한 5개 경기장에서 펼쳐졌다. 한편 광양시는 성숙한 대회 운영과 친절한 손님맞이로 축구 명문도시로서 이미지 제고 하였으며, 10여 억원 상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양=김승호 기자

박성현, 4개월 만에 세계 랭킹 1위 탈환

박성현(26)이 4개월 만에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되찾았다. 박성현은 4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 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6.74점을 획득해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 6.54점을 얻은 에리아 주타누간(태국)을 0.2점 차로 제쳤다. 박성현이 여자골프 세계 1위에 오른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4달 만이다. 지난해에는 5.66점으로 2위였다.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후 점수를 쌓아 1위를 탈환했다. 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필리핀 기업인 블룸베리 리조트&호텔과 여자골프 역사상 최고의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그는 당시 메이저 우승을 포함한 5승과 세계 랭킹 1위를 목표로 삼았다. 이후 3주 만에 1승과 세계 1위를 따내면서 이번 시즌 성공 가도를



박성현이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 뉴 탄종 코스에서 열린 미어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예고했다. 박성현은 오는 6일부터 필리핀에서 열리는 더 컨트리클럽 레이디스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한다. 한편 호주 교포 이민지(28)는 세계 랭킹 3위, 유소연(29)과 박인비(31)는 4, 5위에 이름을 올렸다.

펜싱, 아시아청소년선수권 女 사브르 금·은·동 싹쓸이

한국 청소년 펜싱 대표팀이 2019 아시아 청소년선수권대회 여자 사브르 개인전 1~3위를 싹쓸이했다. 전수인 이현정(이상 호남대) 흥하는(서울시청)은 4일(현지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대회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각각 금, 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전수인은 준결승에서 흥하는을 15-9로 이긴 후 결승전에서 소속팀 동료인 이현정을 15-1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전날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 이어 남자 사브르 종목을 독식했다.



같은 날 열린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도 한국이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냈다. 금메달은 장민혁(한국체대)에게 돌아갔다. 준결승에서 소속팀 동료 안태영을 15-9로 이긴 후 결승에서 다케이 류세이(일본)를 15-1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KIA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

KIA 타이거즈가 광주·전남·전북 지역 야구 유망주 발굴과 육성을 위해 5~8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주관으로 제13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를 개최한다. 10팀이 참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가릴 예정이다. 우승팀과 2, 3위팀에게는 트로피와 상장을 시상한다. 참가하는 모든 팀에게는 야구용품들을 선물

한다. 최우수선수상 등 개인상 10 부문에도 상장이 걸려 있다.

자연의 숨겨진 매력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리산산천, 창세마을, 회현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